

# 민간투자 8개사와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논의

- 2024년부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펀드 조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8일 오전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8개사\*와 함께 녹색산업 투자현황 및 향후 펀드 조성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이엔인베스트먼트, 비엔케이벤처투자,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브이엘인베스트먼트, 인프라프론티어 자산운용

환경부는 2017년부터 녹색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1,878억 원 규모를 출자하여, 총 3,240억 원 규모의 10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환경산업체 중 초기 단계의 기업은 55%이며, 현재 조성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또한, 녹색산업 분야 예비 거대신생(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세한 녹색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출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녹색 새싹기업(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펀드’와 성장 단계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예비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펀드’로 늘려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

이번 민간 전문투자사 간담회에서는 2024년 펀드 조성방향을 공유하고 전문 투자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방안에 대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 녹색시장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녹색 신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녹색산업 분야 펀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녹색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사 간담회 개최계획.  
2.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개요.  
3. 20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인홍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최진성 (044-201-6706)



**□ 개요**

- (목적) 녹색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4년도 미래환경 산업 투자펀드 조성 방향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일시/장소) 2023.11.8.(수) 10:30 ~ 11:50/ 한국벤처투자 4층 회의실
- (참석자) 환경부, 한국벤처투자, 환경계정 운용사(VC) 8개소\*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10호 펀드 운용사(스마일게이트 3개 펀드 운용)

**□ 주요 안건**

- (안건1) 결성 펀드(10개)의 조성·운용 현황 및 투자 우수사례 발표
- (안건2) '24년 신규 펀드 조성·운용\* 방향 공유 및 의견 수렴
  - \* 기업의 성장단계별 전용펀드 조성, 펀드의 주목적투자 대상(M&A) 확대 등
- (안건3) '24년 벤처시장 동향 공유 및 건의사항 논의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30 ~ 10:35(5')	개회 및 인사말씀	실장님
10:35 ~ 10:55(20')	(안건1) 펀드 운용 현황 및 투자 우수사례 발표	운용사(8개)
10:55 ~ 11:25(30')	(안건2) '24년 신규 펀드 조성·운용 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	환경부
11:25 ~ 11:40(15')	(안건3) '24년 벤처시장 동향 공유 및 건의사항	-
11:40 ~ 11:50(10')	폐 회	-

□ **개요**

- (운용목적) 민·관합동으로 펀드를 조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녹색산업 성장 지원('17년~)
- (추진체계) 환경부(출자) →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 민간운용사 (민관합동 자펀드결성 투자) → 기업투자

□ **펀드 조성 현황**

- '17년부터 10개 자펀드 총 3,240억 조성, 78개 기업에 총 1,872억 투자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운용사(펀드명)	정부출자	민간출자	결성액
'17	1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녹색성장 1호펀드)	200	220	420
'18	2호	포스코기술투자, 코나인베스트먼트 (피씨씨-코나 제1호 미래환경산업펀드)	130	61	191
'19	3호	한화투자증권 (2020한화미래환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30	87	217
	4호	이앤인베스트먼트 (2019 모태이앤 클린에어펀드)	150	65	215
'20	5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녹색성장 2호펀드)	100	100	200
	6호	비엔케이벤처투자 (BNK 미세먼지 해결 투자조합)	100	54	154
'21	7호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디쓰리 미래환경 ECO 벤처투자조합)	150	135	285
	8호	브이엘인베스트먼트 (브이엘미래환경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150	203	353
'22	9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녹색성장 3호펀드)	268.4	161.6	430
'23	10호	현대차증권, 인프라프런티어자산운영 (현대차증권-인프라프런티어 미래환경 신기술조합 1호)	500	275	775
계			1,878.4	1,361.6	3,240

□ **추진배경**

- 초기 창업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조성 필요

< 단계별 지원 필요성 >

- (초기 창업) 대규모 투자액 모집 역량 부족 등으로, 펀드 조성 어려움 존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엑셀러레이터 전용펀드 조성 필요(6.16, 기후특위,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공청회)
- (스케일업) 특정 분야의 스케일업 단계 기업을 지원을 통한 유니콘기업 성장 경험은 해당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 있음, 스타트업 지원에서 확장하여 스케일업 단계 지원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한국벤처투자 2022)

□ **'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계획**

- 창업초기-사업화-스케일업 단계별 전용 펀드 조성(1,157억 원 규모, 4개 펀드)
  - (엑셀러레이터펀드) 창업 3년 이내 기업 등 초기 녹색 청년·창업 기업 대상 84억 원 규모 투자
  - (사업화펀드) 성장단계의 녹색 중소·벤처기업 대상 643억 원 규모 투자
  - (스케일업펀드)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분야 중소기업 대상 430억 원 규모 투자

< '24년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 조성(안) >

펀드명	투자대상	조성규모	기업당 평균투자액	자펀드 수
엑셀러레이터 펀드	①창업 3년 이내 ②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42억 원 (정부 30, 민간 12)	약 3억, 14개 기업	2개
사업화펀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	643억 원 (정부 450, 민간 193)	약 15억, 43개 기업	1개
스케일업펀드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430억 원 (정부 300, 민간 130)	약 50억, 8개 기업	1개